

코리아 프리미엄 승부... 중복상장 막고 코스닥 2부리그 도입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
코스닥 성장단계별 체계 개편
저PBR 기업 공개해 가치제고 유도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100조+ α 시장안정 프로그램 가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전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재편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100조원+ 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시장 불안 차단에도 나선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일반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해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

되는 '2부 리그' 체계로 개편된다.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업이 단계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코넥스부터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도 담

겼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확대하고 통신조회권 부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특사경에 인자수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포상금에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

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도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네이밍 앤 세이밍' 방식이 도입된다. 업종별 저PBR 기업을 공개하고 종목에 태그를 부여해 시장 압력을 높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기술특례상장 확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자금 공급을 통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토큰증권(STO) 제도 역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단기 대응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100조원+ 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상황 장기화 시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해둔 상태.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레버

리지 투자 등 잠재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정리할 때 큰돌만 치워서 옥토가 되기 어렵다"며 "이제는 중간돌, 자갈까지 걸러내야 진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제도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의 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장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대응수단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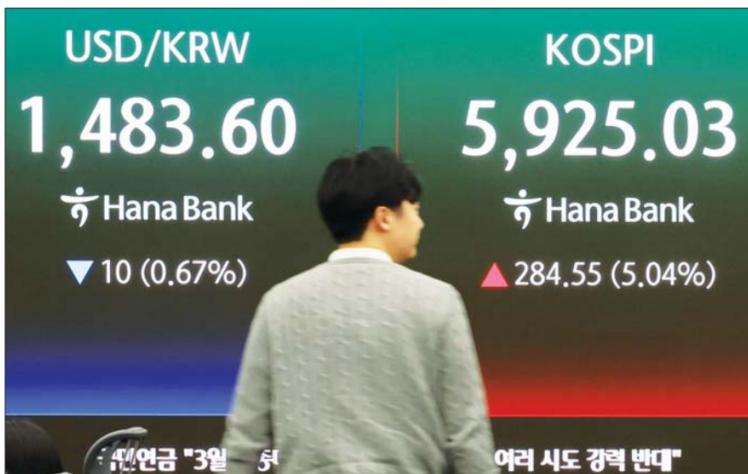
지주사 할인 해소 기대 확산에... 저PBR株 재조명

'자본시장 안정·정상화' 간담회
지주사·금융주 중심 수혜 기대
증시 재평가 전망에 관련주 강세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저PBR 기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주사, 금융주, 코스닥 성장주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상장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 방향으로 ▲중복상장 제한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장기투자 상품 확대 등을 제시했



코스피 급등세로 장종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84.55 포인트(5.04%) 오른 5925.03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는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상태.

특히 중복상장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혜군은 지주사

다. 자회사 상장을 통한 가치 희석 우려가 줄어들면서 기존에 적용되던 지주사 할인 요인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CJ, DN오토모티브, HD현대, LS, SK 등 비상장 자회사를 가진 그룹 지주사들이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 거

론된다. 비상장 자회사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CJ는 CJ올리브영, DN오토모티브는 DN솔루션즈, HD현대는 HD현대로보틱스, LS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 SK는 SK에코플랜트 등을 비상장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날 LS(+7.22%)를 비롯해 CJ(+3.63%), DN오토모티브(+6.01%), HD현대(+2.61%), SK(+3.68%)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중복상장 제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 한국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신디 박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기업 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8000선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 효율성 개선과 중복 상장 해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PBR(주기준자산비율) 기업 개선 정책 역시 관련 종목군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를 유도할 경우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금융주와 보험, 일부 제조 대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 저PBR 종목으로 꼽히는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날 이들 종목은 KB금융(+2.65%), 신한지주(+4.17%), 삼성생명(+8.29%) 등 상승세를 보이며 정책 기대감이 일부 정책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흐름을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 세이밍' 방식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기관투자자의 감시 역할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



metro

금리불안 덮친 대출시장... 주담대 줄고, 마통 늘었다

중동 변수에 주담대 주춤
마이너스 통장 잔액 1조 급증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면서 실제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대출은 '비상금 통장'으로 불리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 1조원 이상 증가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610조

20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 5175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담대는 올 1월 1조4836억원 감소한 이후 2월 5699억원 늘며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담대가 감소한 이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고채금리, 시장금리가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5년 고정(혼합)형이 4.17~6.77%로 집계돼 중동 사태 이후 상당 기준으로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약 두달전

인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상단이 0.47%포인트(p), 하단이 0.14%p 상승한 수준이다.

6개월 변동형은 3.61~6.01%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의 주요 지표인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 16일 3.580%에서 지난 17일 기준 3.877%로 0.297%p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 연말과 연초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오히려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67조2511억원으로 전달 말과 비교해 1조3856억원 증가했다.

이는 가계대출에 포함되는 신용대출이 1조7348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0조860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4352억원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자 차주들이 신규 대출이나 갈아타기를 미루는 분위기"라며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신용대출, 특히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수요가 더 빠르게 위축되는 특징이 있다"며 "반면 신용대출은 단기 자금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